

<2016년 12월 4일 주일말씀>

목적을 정하고 도전하며 행해라

본 문 시편 108편 1절

『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,
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은 ‘목적’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주제는 ‘목적을 정하고 도전하고 행해라.’입니다.

◎ 오늘 말씀을 잘 듣고, 모두 <목적과 목표>를 정해 놓고
<시간>도 보고 <날짜>도 보고 <자기 점검>도 하면서
2016년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.

◎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◎ 먼저 왜 <목적>을 정해 놓고 행해야 되는지,
그 핵심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.

◆ <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것>은

마치 집을 지을 때나 개발할 때 ‘설계도’를 그려 놓고,
그 설계대로 집을 짓고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.

먼저 설계도를 그리지 않고는 건축도 개발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.

◆ 배가 넓은 바다를 향해하는데, <목적> 없이 그냥 갑니까?

그러면 <목적지>가 없으니, 그냥 이리저리 떠다니다가
결국 바다에서 표류하게 됩니다.

◆ 총을 쏠 때, <목표물> 없이 그냥 아무 데나 쏘니까?

<목표물>을 딱! 정해 놓지 않고 쏘면,
<시선>도, <정신>도, <행동>도 다 흐릿합니다.

고로 하루 종일 쏘도 못 맞힙니다.

<목표물>을 정해 놓고 쏘야
<정신과 생각>이 뚜렷해지면서 집중하여 맞히게 됩니다.

◆ 농구나 축구 경기를 할 때도 <골 망>을 목표물로 정해 놓고,
그 안에 공을 넣지요?

그렇지 않으면 <정신>도, <행동>도 분산되어 경기 진행이 안 됩니다.

◆ 육상이나 수영 경기를 할 때도 <목표 지점>을 정해 놓습니다.
그 <목적>을 향해서 <정신과 생각>을 집중해서 행하게 됩니다.

◆ 이와 같이 신앙도, 휴거도, 만사의 모든 일도

<목적>을 정해 놓고 해야

<정신>도, <생각>도, <행동>도, <말>도, <삶>도
흐리멍덩하지 않고 확실합니다.

<목적>을 정하지 않고 행하면

<생각>도 흐릿하고, <행동>도 정확하지 않고,
그러니 <삶>도 흐릿할 수밖에 없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목적>을 두고 하는 자>는 ‘정신, 생각, 행동’ 이 다릅니다.

신앙도 그러합니다.

<목적>을 두고 하는 자>는 <목적>을 이루기 위해서
<목적>에 맞춰서 기도하고, 말씀을 보고, 행하고,
<목적>에 맞춰서 뛰고 달리며 쉬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.

- ◆ 고로 <목적>을 이루려고 하는 자>는
‘말과 행동’ 도 다르고 ‘시간을 쓰는 것’ 도 다릅니다.

- ◆ 모두 ‘목적>을 정해 놓고 행하는 신앙생활’ 을 해야 됩니다.
‘목적>을 정해 놓고 이루는 삶’ 을 살아야 됩니다.
‘목적>을 이루겠다는 생각’ 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.

그래야 <생각>도 흐리지 않고, <행하는 것>도 분명하게 되고,
<시간>도 허비하지 않고, <뛰고 달리는 것>을 쉬지 않습니다.

- ◆ 사람은 <목적>을 놓고 생각하고 행해야 ‘발전’ 됩니다.

〈목적〉을 놓고 생각하고 행해야

척박한 곳을 개발하여 변화되듯 ‘표’가 납니다.

◆ 〈목적〉을 놓고 행하는 자는

마치 ‘산 정상에 목표를 정해 놓고 가는 자’와 같아서
‘다른 방향’으로는 안 가게 됩니다.

고로 ‘시간’도 ‘인생’도 허비하지 않습니다.

힘들어도 ‘도전’하게 됩니다.

◆ 〈목적〉을 정하고 연구하고 행하며 강하게 살아야

많이 하게 되고, 빨리하게 되고, 고치게 되고,
목적을 이루는 기쁨이 쉬지 않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〈기도〉도 ‘목적을 두고 하기’입니다.

〈기도〉로 사탄과 반대자들과 악평자들을 소멸하든지,
자기 죄를 회개하든지, 해 드릴 것을 말하든지,
하늘 앞에 구할 것을 말하든지,
〈각종 목적〉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.

그래야 기도할 때 잡생각이 사라져 집중하게 되고,
기도를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.

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응답하십니다.

◆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〈목적 없는 기도〉는 ‘응답’도 없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<전도>도 “언제까지 몇 명 전도하겠다!” 목표를 정하고,
‘목적’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.

그래야 그 방향으로 가면서 희망이 생기고,
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 연구하고 행하게 됩니다.

- ◆ <관리>도 ‘목적을 두고 하기’입니다.
그래야 생명이 확 잡히고 바로 서게 됩니다.

- ◆ <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위>도 ‘목적’을 정해 놓고,
그 ‘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치기’입니다.

- ◆ 모두 <목적>을 정해 놓고 살아야 됩니다.
그리고 그 <목적>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됩니다.

그래야 총을 쏘 때 목표물을 놓고 쏘듯,
배가 목적지를 놓고 넓은 바다를 향해하듯,
<정신과 생각>도, <행동>도, <삶>도 뚜렷하고 확실하여
<목적한 방향>으로 가게 됩니다.

- ◆ <휴거>도 ‘**첨단의 차원 700선으로 오르기**’를 목적하고,
꼭 그 단계까지 오르기입니다.

- ◆ <교회>도 그냥 되는 대로,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
‘교회 자립, 성전 사기, 교회를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기,
부흥시키기, 지도자 양성하기, 지도자 유능하게 만들기,
자기 만들기.’를 목적하고 연구하고 의논하며 행해야 됩니다.

- ◆ 운동장을 도는 것도 “열 바퀴, 혹은 다섯 바퀴 돌겠다.”
〈목표〉를 정하고 돌아야 그만큼 하게 됩니다.

〈목적〉을 안 정해 놓으면, 하다가 맙니다.

신앙도 “어디까지 하겠다.” 라는
〈목표〉를 두고 해야, 하다가 중단하지 않습니다.

전도도, 관리도, 감사도, 사랑도, 기도도 〈목적〉을 두고 행하면,
〈생각〉도, 〈행실〉도, 〈생활〉도 분명해집니다.

- ◆ 매일 〈목적〉을 정해 놓고, 과감하게 실행해야 됩니다.

- ◆ 〈목적을 정해 놓고 행하는 자〉는
시간을 아끼면서 뛰고 달리고,
태만하지 않고, 게으르지 않고, 헛된 생각도 안 합니다.

- ◆ 매일 하나님과 성령께
‘합당한 할 일’ 을 달라고 기도하고,
‘합당한 목적’ 을 달라고 기도하고,
‘그 목적을 이를 힘과 지혜’ 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.

그러면서 〈자기 목적 속〉에
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’ 를 넣고 함께해야 됩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함께 〈목적〉을 정하고,
일사천리로 생각하며 행하기 바랍니다!

<전환>

- ◆ <목적 없이 사는 삶>은 지루하고 힘들고 곤고합니다.

<목적을 향해 가는 삶, 목적을 이루려고 행하는 삶>은
기쁘고, 희망 있고, 정신과 생각이 뚜렷하고,
힘들어도 곳곳이 행하며 보람을 누립니다.

- ◆ 그런데 사람들은 ‘어디’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.

<이루고도 없어지지 않고
영원히 남아서 누릴 목적>이 있어야 됩니다.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함께하는 목적>이 있어야 됩니다.

곧 인간이 태어난 목적 ‘창조 목적’입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같이
<창조의 목적, 휴거>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.

- ◆ <인간으로서 최고의 큰 도전>은
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‘휴거 도전’입니다.

<인간으로서 최고의 큰 도전>이니까
누구나 다 이루기 불가능하겠지요? (잠시 쉬었다가) 아닙니다.

<휴거 도전>은
하나님께서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
배우고 행하는 것이니
어려도 할 수 있고, 자기 차원대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목적을 이룰 때,
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주가 최고로 힘을 주고,

그 목적을 이루는 자료인 ‘말씀과 성령’을 주시며
최고로 돕고 함께하고 역사하시니,
자기만 주와 함께 끝까지 잘하면 됩니다.

- ◆ <휴거>같이 ‘쉬운 일’도 없습니다.

시대 말씀을 듣고 썩는 것들을 자르고 행하면 됩니다.

이 말씀을 잊지 말아요.

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아예 외우고 살아요.

『<하나님의 말씀>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
<좌우에 날선 어떤 검>보다도 예리하여
<혼>과 <영>과 <관절>과 <골수>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
또 <마음의 생각과 뜻>을 판단하나니』

위대한 시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
자기 마음의 생각과 혼과 영을 판단하며
썩는 것들을 잘라 낼 ‘검’을 가지고 있습니다.

그 검을 과감하게 쓰세요!

썩는 것들과 자를 것만 잘라 내면, 그때부터 휴거는 쉽습니다!

- ◆ 삼위와 주의 도움과 역사하심을 받고,
그 뜻 안에서 그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행하면,
인간으로서 ‘완성’을 이루고 ‘신의 차원’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

- ◆ 인간으로서 <휴거>같이 ‘큰 영광’도 없고,
<휴거된 자>같이 ‘하나님께 큰 대가를 받는 인생’도 없습니다.

과거에도 없었고, 현재에도 없고, 미래에도 없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<휴거>는

‘인간으로서 최고 급 신적 차원으로 완성시키는 것’입니다.

‘삼위일체의 절대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
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’입니다.

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졌으니,
그 대가로 그 영이 <최고 급의 영원한 황금성 천국>을 얻고,
그곳에 저마다 <자기 휴거 집과 환경>을 만들게 됩니다.

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~고로 행하고,
그로 인해 최~고의 목적을 이루어 최~고로 변화되고,
그 대가로 최~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얻고,
그곳에 최~고의 것을 건설하는 것입니다.

- ◆ 그러나! 이 땅에 ‘하나님이 정하신 시대’가 와야
<휴거의 역사>를 행하게 되고,
<휴거의 꿈>을 실제로 실현하게 됩니다.

여러분은... 지금...! 그때를 맞고 살고 있습니다. 할렐루야!

- 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지금 <하나님이 정하신 시대>가 왔고,
<하나님이 보낸 자>가 와서 너희와 함께 있고,
<이 시대가 행할 하나님의 목적과 뜻>을 가르쳐 주었다.

이제 행하자! 하다가 중단하지 말아라.

<목적>을 두고 감행하자!” 하셨습니다.

◆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.

최고로 좋은 환경에 최고로 멋진 집을 짓고 있는데,
술친구가 생기고, 이성 친구가 생기고,
생각이 빗나가서 생활이 퇴폐하게 되고,
생각하는 수준이 떨어져서

“내가 왜 거기에 집을 짓지?

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집을 지으려니 놀지도 못하고 힘들어.

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해야지.” 하면서, 가치를 잊고 떠나갑니다.

지금 당장은 입에 쓰니까 안 먹고,
당장 입에 단 것만 찾아 떠난 것입니다.

술친구도, 이성 친구도, 자기가 좋아하는 생활도, 즐기던 것도,
겪은 후에 보니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

왜요? 그런 것은 기쁨도 흥분도 만족도 ‘한계’가 있기 때문입니다.

그제야 ‘자기가 버리고 온 곳’을 생각하게 됩니다.

술, 이성, 미디어, 각종 것에 취해 흥분되어 행하다가
한계를 맞고 깨어나니 ‘허망함’을 느끼게 됩니다.

이성 사랑도, 돈도, 물질도 다 ‘한계’가 있습니다.

그 한계는 ‘목적’을 이룬 곳’입니다.

<불의의 목적을 이룬 한계선>입니다.

고로 ‘그다음 목적’이 없고, 거기서 끝납니다.

지속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. 고로 ‘허무’합니다.

- ◆ 불의도, 악도, 육적인 것도 모두 ‘한계’가 있습니다.

〈불의와 악과 육적인 목적〉을 이루고 〈한계〉를 맞으면,
그 〈목적지〉는 곧 ‘지옥’입니다.

- ◆ 선과 의, 영적인 것도 ‘한계’가 있습니다.

〈선과 의의 목적〉을 이루고 〈한계〉를 맞아 〈극〉까지 달하면,
그곳이 곧 ‘황금성 천국’입니다.

- ◆ 〈완전한 신이 되기까지의 변화〉는

육신이 살 동안에는 ‘한계’까지 도전하지 못합니다.

- 먼저 〈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〉에
주의 말씀을 최~고로 행하고
삼위와 주를 최~고로 사랑하면서
〈영의 운명〉을 ‘휴거’로 결정짓고
〈육〉이 주를 따라 계속해서 차원 높여 행하다가,
- 육이 죽은 후에 〈영〉이 영계에 가서도
계속해서 ‘더 빛나는 영으로 변화’돼야 합니다.

- ◆ 100만 볼트 전기를 놓고 5볼트에서부터 계속 올려 나가듯
〈자기 의의 삶〉으로 점진적으로 자기를 키워 가면서
계속 차원 높여 올라가야 됩니다.

- ◆ 그러나 〈인간의 지능과 책임〉만으로는
‘하나님이 원하시는 데’까지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.

시대 말씀을 듣고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대로 행하고,
그 보낸 자와 일체 되어 계속 변화돼야 합니다.

이러한 목적을 두고,
<창조의 목적>을 따라 절대적으로 돕고 함께하시는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계속 행하기를 축원합니다!

<전환>

◆ <목적을 두고 행하는 자>는 ‘전문가’입니다.

가령 운동을 하더라도
<매일 1000m씩 뛰면서 보편적으로 운동하는 자>는
건강의 현상 유지만 합니다.

그러나 <시합을 목적으로 하고 운동하는 자>는
딱딱 <시간>을 정해 놓고
거기에 따라서 매일 전문적으로 뛰고 기타 운동도 하며
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와 싸우며 꾸준히 행합니다.

◆ 신앙도 그러합니다.

새벽기도를 하거나 교회 일을 해도
<특별한 목적> 없이 하면 ‘신앙의 현상 유지’ 만 될 뿐입니다.

고로 <정신>도, <행실>도, <말>도, <삶>도
그렇게 뚜렷하고 투철하지 않습니다.

◆ <보편적으로 행하는 자>는 ‘삶의 현상 유지만 하는 자’입니다.

<일반적으로 신앙을 하는 자>는
‘신앙의 현상 유지만 하는 자’입니다.

- ◆ <목적을 두고 행하는 자>가 ‘전문가’입니다.
고로 가능성이 많습니다. <전문가>는 결국 합니다.
- ◆ <목적을 두고 기어이 완성하고자 하는 자>는
‘상(上)차원 급 신앙을 하는 자’입니다. 고로 꼭 해냅니다.
- ◆ <차원>을 높이려면
<목적>을 정해 놓고 ‘그것이 될 때까지’ 해야 됩니다.
- ◆ 인생, 목적을 가지고 부지런해야 됩니다.
자꾸 ‘해 버릇하는 생각’을 가져야 됩니다.

당장 편하려고 ‘안 해 버릇하는 생각’을 가지면,
그쪽으로 길들여져서 <뇌와 생각>이 그렇게 조직되어 버립니다.
- ◆ 게으르면, 인생 성공하기 1000분의 1이나 어렵습니다.
부지런하여 <목표를 향해 해 버릇하는 자>는 성공하기 쉽습니다.
- ◆ 그러나 <목표>를 정해 놓고
<목표>만 달성하려고 일을 거칠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.

<목표>도 달성해야 되지만,
<최고 목표>는 ‘주어진 일을 100% 온전히 하기’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<목표물> 없이 ‘활’을 쏘든지 ‘총’을 쏘면

기술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, 하루 종일 썩도 목표물을 못 맞힙니다.

◆ 동물들도 사냥할 때

어떤 것을 잡아먹을지 <목표>를 정해 놓고, 그놈을 쫓아잡니다.

그러면 ‘쫓던 짐승’ 이 지치지요?

그러니 ‘그놈’ 만 쫓아 잡아야 잡힙니다.

<목표물>을 정해 놓고 이 놈, 저 놈 쫓으면 못 잡습니다.

◆ <주의 일>도 그러합니다.

일주일의 일도, 한 달의 일도, 1년의 일도

<목표>를 정하고 집중해서 해야

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행하여 <목적>을 이루게 됩니다.

◆ <목표>를 두고 행하면 ‘오늘은 뭐 하지?’ 하면서
막연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.

◆ <목표>를 정해 놓고 ‘도전’ 하는 것입니다!

<목표>도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듯, 사막을 떠돌듯 하면
방황하는 인생이 되어 결국 ‘돌아오지 못하는 처지’ 가 됩니다.

◆ 이번 주도, 2016년 남은 시간도, 또 새로 맞이하는 새해도
먼저 <목표>를 정하고 그에 따라 <시간>도 <날짜>도 보면서 행하고,
매일 <자기 점검>을 하기 바랍니다.

◆ <목표>를 정하고 해야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
바로 <목표>에 접해 생각하고 행하게 되니,

시간도 절약하고, 시간을 **황금 시간**으로 쓰게 되고,
불가능한 것도 하게 됩니다.

- ◆ 황금 같은 이때! <영원한 휴거의 삶>을 살면서
하나님과 주 안에서 <뚜렷한 목표와 목적>을 정하고,
<정신>도, <생각>도, <행실>도, <삶>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여
매일 도전하며 차원 높이기를 축원합니다!